

'같이의 가치' aT, 중기·지역 동반성장 앞장

중기부, 58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aT 최고등급 달성 한전·KPS·KDN·농어촌공사 '양호'...콘텐츠진흥원 '보통'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은 비교적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 평가'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 동반성장 성과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4등급 평가를 했다.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aT를 포함한 8개 기관만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aT는 지난해 농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하며 농업인·중소 농식품기업·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내외 판로개척 및 자금지원 ▲저가 유통기반 확산 및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원스톱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성과공유제 확대 ▲동반성장물 협업 등을 펼쳤다.

aT는 지난해 동반성장주간 정부포상에

서 농업기관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호' 등급(21개사)에 이름을 올린 나주 혁신도시 기관은 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 4곳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140억원 상당 중소기업 매출을 끌어올린 한전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전은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구매, 실증 등을 지원해왔다. 한전이 지원한 국산화 연구개발(R&D) 과제 연구비는 14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전은 특별공모,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형식으로 국산화 신규과제 7건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초전도 송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하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분야 핵심부품

을 국산화했다.

국산화 R&D 촉진을 위한 개방형 테스트베드(실증) 플랫폼도 운영하며 중소기업 시험비용 5억7000만원을 절감했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콘텐츠진흥원은 6개월 동안 진흥원에 입주한 상가에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실적을 2020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 체계를 현재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한국노사협력대상 '우수상' 수상 제32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류종남(오른쪽 두번째) 한전KPS 상생협력처장과 이상욱(오른쪽 세번째)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이 '한국노사협력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

한전KPS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제32회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전KPS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회사 지속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공헌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대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전KPS는 노사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노사공동 선언'을 선포했으며 18년 연속 '평화적 무분규 임금협약'을 맺어왔다.

노사는 '안전경영위원회'와 '안전경영 협의체'를 마련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 무재해 사업장을 이뤄냈다.

한전KPS 현장 인원은 협력회사 포함 하루 7000여명 정도다.

한편 올해 32회째를 맞은 한국노사협력대상은 1989년 이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해 오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들

주요 강의 온라인 대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한전KDN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컴퓨터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력IT 개론' 과목을 23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산학협력 협약을 맺으며 시작한 이 강의는 지역 대학생을 전력IT 인재로 양성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혀왔다.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6월 말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한전KDN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4차 산업 관련 IT기술과 정보 보안 등 IT전반과 송전전, 전력거래,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계통 9개 주제로 나뉜 강의를 펼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 유통교육원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쌍방향 원격 생방송 교육을 도입했다.

aT는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농식품 유통산업 관련 교육을 쌍방향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라이브방식으로 28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교육은 현장실습 비중이 낮은 과정을 이룬 중심으로 다시 설계됐다. aT는 ▲농산물 경매사 의무교육 ▲농식품 창업 ▲푸드플랜의 이해 ▲식품 불만 대응기법 등 총 11개 과정을 먼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정규 유통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서비스 등 기술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4년 연속 선정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4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전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CDP 한국위원회 주관 '2019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은 우수 탄소경영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이 상을 받고 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2000년에 설립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영리 기관으로, 92개 국가의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노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전 세계 8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전은 2008년부터 동참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탄소



한국전력이 28일 열린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4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수상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형탁 한전 기후변화정책부장, 장지인 한국CDP위원회 위원장.

경영 우수기업으로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탄소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ISA,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도구' 무료 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소·영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 도구를 무료로 배포한다.

인터넷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50인 미만의 업체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용PC 개인정보 보호도구'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진흥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무료 배포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점검도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용PC에서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올해는 ▲이미지·PDF 등 비정형 파일

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점검 기능 ▲여러 대의 PC에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 ▲윈도우10 최 최신 운영체제(OS)에서의 점검 기능이 추가됐다.

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켜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비대면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과 문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공기업 최초 성폭력 예방 '어플' 도입

한전KPS가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28일 한전KPS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한전KPS 리스투미' 앱을 지난 27일 도입, 적극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바일 앱은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기록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쉽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검토 대응가이드도 함께 제공되며, 피해자 인적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2차 피해를 방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업체 모집

임대료 80%·관리비 50%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명준·이하 콘진원)은 상반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와 게임벤처4.0을 각각 6개 기업 이내로 모집한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게임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 게임기업과 신규 개발사, 예비 창업인을 위해 입주 공간과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는 국내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하며, 상주근무인력에 따라 대형(135㎡), 중형(99㎡), 소형(50㎡) 등 사무공간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입주사들은 임대료 80%, 관리비 50%의 입주지원을 받는다. 또한 경영

·법률 컨설팅 지원, 모바일·VR게임 테스트베드 장비 및 시설 활용, 선택형 심화 QA 서비스 및 상시 QA 가이드 교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게임 개발용 SW 및 인터넷 전용선 무상 지원 등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업 1년 미만의 신규 개발사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게임벤처4.0은 입주비용 전액 지원을 받아 공동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사와 동일한 시설 및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과 예비 창업자는 오는 5월6일 오후 3시까지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다위의 꽃처럼 천사섬 흑산도! 디도해의 하늘길이 열립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초의 섬지역 소형공항 흑산공항 개항

6개월 1004섬의 표정이 바뀔다. 흑산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흑산공항

Heuksan Airport

01 도시민(이용객)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

어디서든 직항으로 1시간! (무안국제공항 30분)

- 흑산도와 홍도, 거제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관광 명소로서 매년 약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 현재의 수도권에서 흑산도까지는 육상과 해상교통을 모두 이용해 약 7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하늘길(항공기)을 이용하면, 전국공항 어디서든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 년중 110여일 동항주의보 등으로 선박을 결항하지만, 공항개항으로 언제든지 육지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 특히, 흑산공항 건설로 인해 국토 최서남단 거제도과 만재도 등 11개의 부속도서와 비공/도초도 섬들을 연결해주는 해상교통의 요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02 세계속의 안전한 흑산공항

- 국내 법령과 국제 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UN산하 전문기구인 ICAO(이카오)에서 권고하는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안전 전문을 통해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어줄재해요인 분석

운항 시뮬레이션 구축

-취항예정 항공기의 시뮬레이터를 제작

-실제 비행환경과 약 99%이상의 환경을 일치시켜, 시뮬레이션 및 항공학적 검토 시행

-흑산공항 운항계획인 ATR-42기종(50인승, 터보프롭)은 미국유럽 등 상용화되어 운영 중(96개 항공사 295대)

실제비행환경 99%이상 일치

03 실속있는 경제적인 공항

경제성(B/C) 4.38

비용(Cost) 약 1,833억원

편익(Benefit) 약 6,800억원

-흑산공항은 건설비 대비 4.38의 국민 편익 증가 효과를 입증하는 경제성 분석을 마쳤습니다.

-흑산공항은 5조원 이상의 대형공항이 아닌 2천억원 이하의 건설비로 경제적인 소형 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04 국립공원과 함께 친환경 공항건설

동식물, 해양환경 및 산림자원 고려

-흑산공항은 흑산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개소가 넘는 후보지에 대한 세부 검토 및 타당성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철새보호를 위해 먹이공급(조, 수수)과 보금자리(습지, 초지) 조성하여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공항시설 신설사내 분석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 및 철새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친환경 해양생태공항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 예정지

흑산공항 시설과 운영 안정성 검증은 마쳤습니다.

소형공항은 섬사람들의 소망이자 희망입니다.